서울 청년, 코로나19로 다차원적 빈곤위험 커져 '봉쇄세대'로 전락 않도록 청년지원 확대 필요

코로나19 감염병시대, 서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이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빈곤은 아동, 노인 빈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청년빈곤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노동시장 불안정성 심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소멸은 청년의 빈곤 위험을 높여 록다운 세대(Lockdown generation, 봉쇄세대)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성인 초기에 경험하는 결핍은 전 생애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의 빈곤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서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7개 영역 17개 지표·7개 기초역량 지표로 측정

이 연구는 청년빈곤을 청년의 삶을 고려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성인 초기 사회적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차원적 자원과 기회가 결핍, 박탈, 배제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해 경제와 비경제적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는 7개 영역(① 경제, ② 교육·역량, ③ 노동, ④ 주거, ⑤ 건강, ⑥ 사회적 자본, ⑦ 복지) 17개 빈곤 측정지표와 기초역량 빈곤 측정을 위한 7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와 '2020 서울청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18~39세 청년의 다차원 빈곤 특성 변화와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 빈곤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다.

[표 1] 청년의 다차원 빈곤영역과 측정지표

경제	교육·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
소득 빈곤 순자산 빈곤 고금리 부채	**니트** 자율성	**실업** 고용안정	**비적정주거** 최저주거기준	**자살생각** 우울증상 미충족 의료	**사회적 고립** 사회적 관계망	**식생활 결핍** 주관적 행복감 미래 전망

주 : 볼드체는 기초역량 빈곤 측정지표임

서울 청년, 자산빈곤 큰폭 증가…교육·역량, 노동 빈곤율 높고 중복결핍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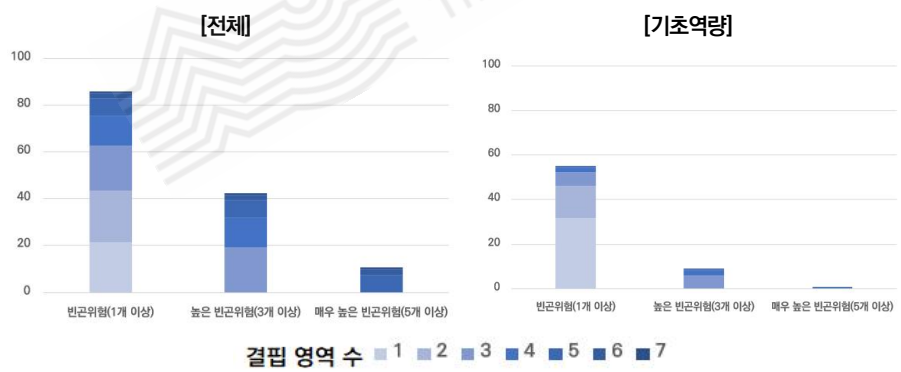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해 전국과 서울의 청년과 다른 연령집단의 2010년과 2019년 다차원 빈곤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 청년의 소득빈곤율은 낮아졌지만 자산빈곤율(순자산이 3개월간 최저생활에 필요한 수준(중위소득 40%)에 못 미치는 경우)이 크게 증가해 경제적 빈곤 위험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의 소득 빈곤율은 2010년 6.0%에서 2019년 3.7%로 감소했지만, 순자산 빈곤율은 2010년 45.5%에서 2019년 57.6%로 약 12.1%P 높아졌는데, 이는 전국 청년(6.5%P)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단일차원의 소득 빈곤만으로 서울 청년의 빈곤을 측정할 경우, 청년의 빈곤 위험이 과소추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영역을 포함하여 7개 영역의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은 줄었지만,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은 증가하였다. 2010년 서울 청년의 1개 이상 영역 빈곤율은 76.7%로 전국 청년(84.1%)보다 낮았는데, 2019년에는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은 82.0%로 높아지고, 전국 청년은 83.4%로 감소하였다. 특히 서울 청년은 경제, 교육·역량, 노동영역 빈곤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빈곤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보다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3개 이상 영역이 결핍된 중복빈곤율에서도 확인되었다. 전국과 서울 모두 다른 연령집단의 중복빈곤율은 낮아졌는데, 서울 청년은 2010년 19.5%에서 2019년 21.1%로 1.6%P 높아졌다. 이는 교육과 취업 준비를 위한 인프라, 다양한 일자리 기회가 집중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 오히려 더 빈곤할 가능성이 큰 '빈곤의 역설'을 보여준다.

2020년 기준 서울 청년 86%, 1개 이상 결핍 … 42.5%는 3개 이상 중복빈곤

‘2020 서울청년실태조사’를 이용해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청년의 86.0%가 7개 영역 중 하나라도 결핍된 빈곤 위험 상태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3개 이상 영역이 결핍된 청년은 42.5%, 5개 이상 영역이 결핍된 심각한 수준의 빈곤 위험에 직면한 청년은 10.5%였다. 2020년 7월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청년 인구(311만 4,704명)를 적용하면, 약 32만 7천 명의 청년이 매우 높은 빈곤 위험에 직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청년 55%, 기초역량 빈곤 상태 … 8.7%는 3개 이상 기초역량 중복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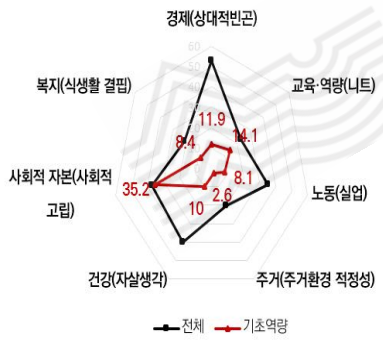
한편, 영역별로 정책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핵심지표 1개를 선정한 기초역량 빈곤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청년의 55.0%가 ‘기초역량 빈곤’ 상태였으며, 3개 이상 기초역량이 결핍된 청년은 8.7%, 전체 영역 중 5개 이상 기초역량이 결핍된 청년은 0.5%였다. 약 1만 5,573명의 서울 청년이 정책지원이 시급한 심각한 결핍 상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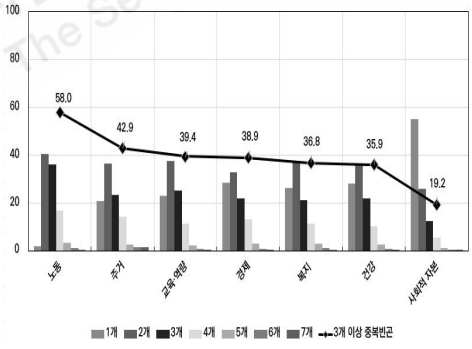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 빈곤위험 진단

서울 청년 중복빈곤율, 비경제적 영역 높아 '노동·주거 등 결핍 해소 지원을'

서울 청년의 영역별 빈곤율은 경제영역의 빈곤율이 높았지만, 기초역량 빈곤과 중복빈곤율은 경제보다는 비경제적 영역에서 더 높게 확인됐다. 비경제적 영역 자원이 결핍된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 빈곤율은 경제(52.9%)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건강(40.3%), 사회적 자본(37.4%), 노동(35.4%), 교육·역량(22.9%), 복지(21.3%), 주거(20.3%) 순이었다. 기초역량 영역 빈곤율은 사회적 자본(35.2%), 교육·역량(14.1%), 경제(11.9%), 건강(10.0%), 복지(8.4%) 노동(8.1%), 주거(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2]). 영역별 빈곤청년의 중복빈곤 위험을 확인한 결과, 식생활 결핍 등 복지 영역 빈곤청년의 84.2%가 3개 이상 중복빈곤 상태였으며, 평균적으로 4.0개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역량, 주거, 건강, 노동, 사회적 자본이 결핍된 청년의 중복빈곤율도 7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기초역량은 노동, 주거, 교육·역량의 기초역량이 결핍된 경우 3개 이상 영역에서 중복빈곤을 경험할 위험이 컸다([그림 3]). 이는 실업, 비적정주거, 니트 청년이 경제, 복지, 사회적 자본, 건강 등 영역에서도 빈곤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 서울 청년 다차원 빈곤



[그림 3] 영역 빈곤에 따른 중복빈곤율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0대는 경제·주거 빈곤위험이 높고, 30대는 사회적 자본·복지 빈곤율이 높아

서울 청년의 빈곤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은 경제, 교육역량, 건강, 사회적 자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20대, 1인가구, 저학력, 실업이나 비정규직, 비재학 미취업자, 저소득 청년의 취약성이 높았다([표 2]). 성별은 건강과 사회적 자본 빈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는데, 남성은 사회적 자본 빈곤 위험이, 여성은 건강 빈곤율이 높았다. 20대는 경제, 주거 빈곤 위험이 컸고, 30대는 사회적 자본과 복지 빈곤율이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청년 이행기 사회적 과업과 직접 관련된 노동과 교육·역량 그리고 귀속지위의 역할을 하는 경제영역 빈곤율이 높았고, 1인가구는 복지, 주거 빈곤 위험이 컸다. 이는 1인가구 청년의 취약성이 독립 초기 경험하는 삶의 불안정성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업, 미취업, 비정규직 등 고용 불안정은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 빈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안정적인 노동시장 이행이 청년빈곤을 예방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한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측정에서 소득 빈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은 청년의 빈곤 위험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와 동거하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은 청년에게 가구소득은 교육역량, 노동 등 사회적 과업이행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자본, 복지, 건강영역의 빈곤 위험을 가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정책의 대상 확대와 더불어 결핍 수준이 높은 저소득가구 청년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표 2] 영역별 빈곤 위험요인

특성		경제	교육·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
빈곤 위험 (+)	여성		◆	◆		● ◆		
	남성						● ◆	
	20대	● ◆		◆	● ◆			
	30대						● ◆	
	1인가구	◆			● ◆			●
	부모동거	●	● ◆	● ◆				◆
	비정규직	◆			◆	●	● ◆	● ◆
	미취업	◆	●			● ◆	◆	●
	저학력	● ◆						
	저소득		◆	● ◆		● ◆	● ◆	◆

주 1) [표 4-15]를 이용해 도식화함

2) 전체 지표 빈곤 ●, 기초역량 빈곤 ◆

서울 청년의 생애주기·이행기 빈곤위험 특성 반영한 맞춤형 청년정책 세워야

이 연구는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에 대응하는 4가지 정책 방향으로 '청년의 이행기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 '서울 청년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 '비경제적 영역 빈곤 대응을 위한 집중지원',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년의 이행기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연령, 노동시장 이행 상태, 주거 독립 여부에 따라 다차원 빈곤 위험이 다르게 확인됐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는 청년의 이행기 특성과 일과 교육을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연령별 이행기 변화와 정책 욕구를 진단하여, 청년의 빈곤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 청년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 청년은 1인가구와 부모동거 가구 여부에 따라 빈곤 위험 영역과 중복빈곤 위험이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에서 성장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은 청년은 노동, 교육·역량 빈곤 위험이 컸고, 부모 가구가 저소득이면 7개 영역 빈곤율이 매우 높았다. 한편 청년 1인가구는 노동이나 교육·역량 빈곤보다 주거, 사회적 자본 빈곤 위험이 컸고, 경제영역 빈곤도 부모동거 가구 청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서울시 청년이 취약한 비경제적 영역 빈곤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비경제적 영역 빈곤은 다른 영역의 중복빈곤을 높일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을 완화하려면 이들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청년빈곤이 확장되는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지표를 정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정책 수립을 위한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지표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